

# “2012 런던올림픽 티켓 따겠다”

###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러 전훈 마치고 귀국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7·세종고·사진)가 3월25일부터 이탈리아 페사로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대회부터 톱10에 진입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달 9일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의 노보고르스크 훈련센터로 전지훈련을 떠났다가 50여일 만인 28일 일시귀국한 손연재는 “9월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종합에서 15위 안에 들어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러시아에서 리듬체조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예브게니야 카나예바, 다리아 콘다코바와 함께 훈련하며 새 안무를 배운 손연재는 열흘간 국내에 머물면서 재활훈련과 CF 촬영 등을 한 뒤 3월11일 다시 러시아로 돌아간다.

손연재는 “새 시즌이 시작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맞춰 훈련했다”면서 “기술 난도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음악이 바뀌었고 분위기도 달라졌기에 시니어 무대 1년 차였던 지난해와는 다른 성숙한 연기를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노보고르스크 훈련센터에서 손연재는 리듬체조의 대모인 이리나 비너르 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루 10시간 가까이 구슬땀을 흘리며 3월 첫 대회를 준비해왔다.

손연재는 “3월 이탈리아 대회부터 9월 프랑스 몽펠리에 세계선수권대회까지 계속 국제대회에 참가해 기술 숙련도를 높여 가겠다”면서 “FIG 월드컵 대회에서 톱10도 중요하나 궁극적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5위권에 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코치와 선수가 일대일 지도로 훈련을 하다 보니 한눈을 팔 사이가 없을 정도로 훈련 열기가 뜨겁다.

손연재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수준을 따라가고 있음을 느낀다”며 훈련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새 안무를 배운 손연재는 지난 주말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해 줄을 뺀 후프와 볼, 곤봉 등에서 괜찮은 성적표를 받아 자신감을 높였다. 손연재는 11일까지 태릉선수촌에서 김지희 코치와 호흡을 맞추며 페이스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손연재는 3월 25~27일 이탈리아 페사로서 열리는 FIG 월드컵 대회를 뒀 뒤 4월 28~5월1일 포르투갈 포르타마오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월드컵 대회에 나선다.

이후 곧바로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날아가 5월 6~8일 열리는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다. /연합뉴스

## 런던올림픽 입장권 신청 접수 오늘부터 시작

2012년 런던올림픽 입장권 1차 구매 신청을 1일부터 접수한다고 대한체육회(KOC)가 지난 28일 밝혔다.

KOC에 따르면 1차 입장권 구매 신청은 KOC 공식 후원사인 ㈜세방여행사 홈페이지(www.globaltour.co.kr)에서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 4월28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런던올림픽 입장권은 거주 국가의 공식 판매 대행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방여행사가 공식 판매 대행사로 지정돼 있다. 문의 02-330-4000. /연합뉴스

# 축구대표 차출 갈등 해법 찾을까

### A대표 조광래-올림픽 홍명보 내일 조율 회동

“큰 틀에서 A대표팀이 중요하지만, 올림픽은 메달이 걸려 있고 20세 이하(U-20) 대표팀도 세계대회가 있으니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조영중 대한축구협회 기술교육국장 겸 조중연 축구협회장이 주재하는 조광래(57) A대표팀 감독과 홍명보(42) 올림픽대표팀 감독의 회동이 축구대표팀 선수 차출을 둘러싼 이견 해소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광래 감독과 홍명보 감독은 2일 오전 11시 축구회관 5층 회상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의견을 나눈 뒤 점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축구협회의 이회택 기술위원장과 김진국 전무도 동석한다.

이번 회동은 오는 6월과 10월, 11월 예정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과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 예선 일정이 겹치면서 생길 수 있는 대표 차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A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선수 중 구자철(22·볼프스부르크)과 기성용(22·셀틱), 지동원(20·전남), 윤빛가람(21·경남), 김보경(22·오사카), 홍정호(22·제주), 조영철(22·니가타), 김영권(22·FC도쿄), 손흥민(19·함부르크), 남태희(20·발랑시엔) 등 무려 10명은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뛸 수 있다.

그러나 A대표팀이 6월 4일과 7일 국제축구연맹(FIFA)의 A매치 데이를 이용한 평가전이 예정돼 있고 올림픽 대표팀은 같은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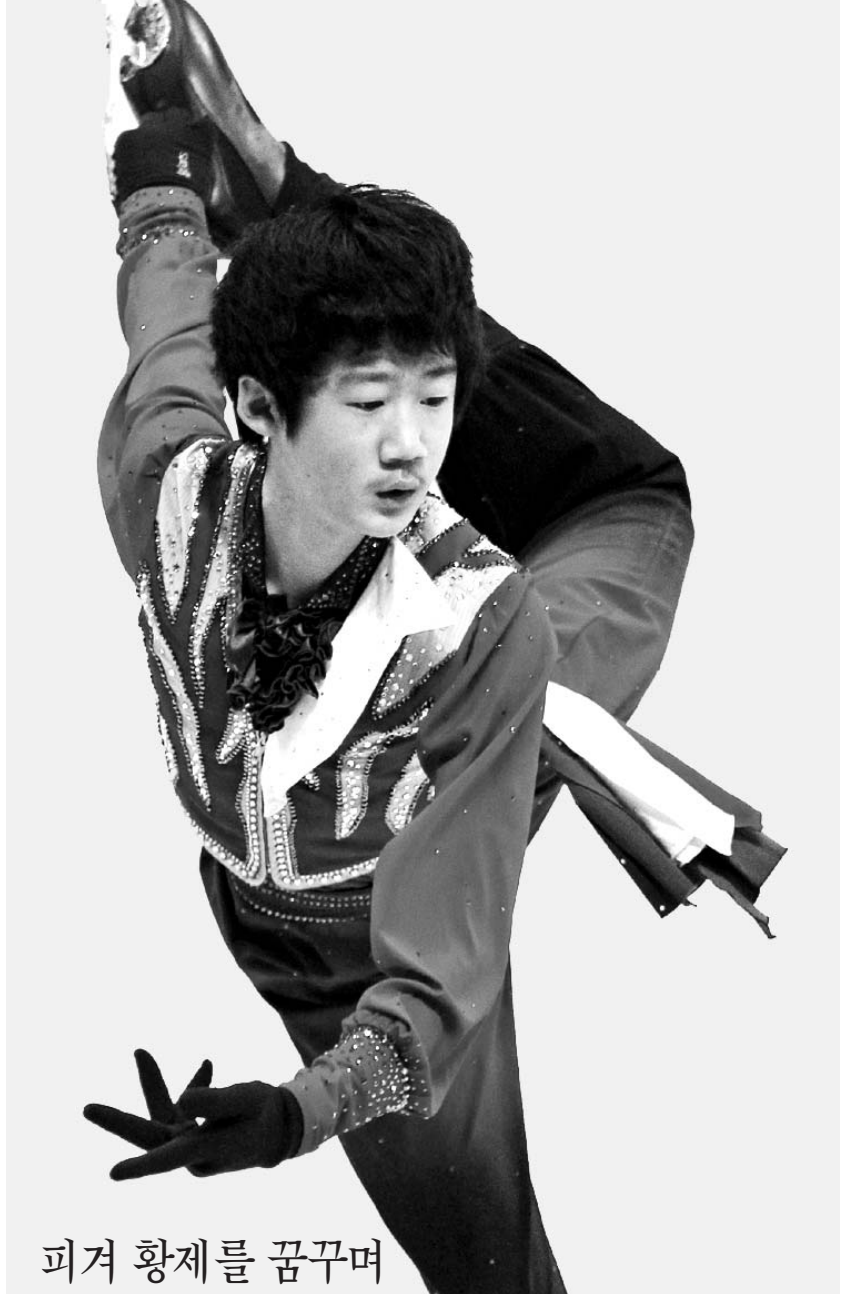
19일과 23일 아시아 예선을 치러야 한다.

A대표팀은 또 10월 7일 필리핀과 11월 아시아 3차 예선에 잡혀 있다. 반면 올림픽팀은 10월 23일과 11월27일 아시아 예선을 소화해야 한다.

대표팀 소집 시기가 겹칠 수 있는 데다 A대표팀에 차출되면 해당 선수들이 소속 구단의 협조를 얻어 올림픽팀에 나가기 어렵다. 특히 유럽과 선수들은 A대표팀과 올림픽을 동시에 참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홍명보 올림픽팀 감독은 “일정이 겹치면 대표 선수들 A대표팀에 우선 뽑는 건 동의한다”면서 “대신 프로축구 포스트시즌과 겹치는 11월에는 국내 K리그 구단들이 올림픽팀 선수들을 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조광래 A대표팀 감독은 “아직 선수를 뽑지 않아 누구를 올림픽팀에 배정할지 등을 이야기하는 건 어렵다”면서 “그러나 A대표팀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올림픽팀에 안 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피겨 황제를 꿈꾸며

국제빙상경기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피겨스케이팅 꿈나무들의 제전인 '2011 피겨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가 지난 28일 강릉 실내빙상장에서 개막, 남자 싱글에 참가한 국내 남자 피겨의 희망 이동원(14·과천중)이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패투’ 김병현

### 라쿠텐 마무리 투수로 급부상



일본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역투를 펼친 김병현(32·라쿠텐 골든이글스)이 팀의 마무리 투수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산케이스포츠’는 28일 인터넷판에서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우수한 경력이 있는 김병현의 어깨에 라쿠텐의 성패가 달렸다며 관심을 보였다.

김병현은 26일 주니치, 27일 니혼햄과의 경기에 잇달아 등판, 각각 1이닝을 삼자범퇴로 막고 실점 감각을 조절했다.

이 신문은 높게 들어오던 불이 사라졌고 빠르게 가라앉은 고속 싱커가 시선을 끌었다고 소개했다. 니혼햄과의 경기에서는 싱커의 구속이 최고 시속 138km까지 찍혀 직구(137km)보다도 빨랐다.

‘산케이스포츠’는 일본 오키나와현 구메지마에서 1차 전지훈련을 치른 김병현이 당시 스프링캠프를 방문한 야마다 히사시(63) 전 주니치 감독에게서 싱커의 비법을 배웠다고 전했다.

야마다 전 감독은 잠수함 투수로서 일본에서 최다인 284승을 거둬 최고 언더핸드 투수로 통한다. 현역 때 스트라이크 존 근처에서 급격하게 가라앉는 싱커를 잘 던졌고 이를 김병현에게 전수한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에 제대로 된 불을 던져보겠다”며 부활을 다짐한 김병현이 직구 구속을 140km대 중반까지 끌어올린다면 전매특허인 슬라이더와 새 구종인 싱커의 위력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현대건설 V리그 챔피언 직행

### 여자부 2연속 정규리그 우승

실력 좋은 대장장이 황현주(45) 감독이 만든 날카로운 창과 두꺼운 방패를 양손에 쥔 현대건설이 여자 프로배구 정규 시즌을 2년 연속 우승했다.

현대건설이 초반부터 선두를 독주한 끝에 정규 시즌 폐막을 보름 남짓 남겨둔 지난 28일 최대 라이벌 도로공사를 따돌리고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20경기를 치른 이날까지 거둔 성적은 17승3패(승률 0.850)로 지난 시즌 최정상 성적(23승5패)보다 승률이 높다.

견실한 수비를 바탕으로 라이트 거포 황현주(25)가 가세해 황 감독 특유의 화려한 공격 배구가 꽃을 피웠다. 2년 연속 정규 시즌을 평정한 현대건설의 원동력은 공수의 완벽한 조화에 있다.

또 자유계약선수(FA) 황연주와 연봉 1억8500만원에 3년 계약하면서 공격진을 강화하고 외국인 선수 케니 모레노

(32·레프트)와 양효진(22·센터), 황연주(30·리브러)를 투입하며 공격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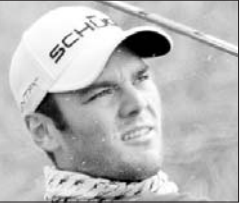
현대건설은 후위 공격과 서브, 블로킹에서 2위를 달렸을 뿐 나머지 공격 7개 지표에서 선두를 질주했다. 전날까지 케니(320점·4위)와 양효진(270점·6위), 황연주(271점·7위) 공격 트리오가 득점 10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탄력이 좋은 공인구를 사용하면 서브에 중점을 둔 전략도 잘 통했다.

‘서브 퀸’ 황연주가 39개나 서브 에이스를 터뜨렸고 케니(23개)의 파워 넘친 서브, 세터 염혜선(18개)의 지능적인 목적타 서브가 불꽃을 뿜으면서 현대건설은 상대 리시브를 흔들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또 리시브에서 1위를 달리며 수비를 강화했고 수비에서 올라온 공을 공격 선수에게 토스하는 세트에서도 1위를 달리며 공수전환에서 빈틈없는 조직력으로 승승장구했다. /연합뉴스

# 카이머, 새 골프 황제

### 유럽골퍼들 세계 랭킹 1~4위



유럽프로골퍼들이 맹위를 떨치며 세계골프랭킹 상위권을 점령했다.

28일 발표된 세계골프랭킹에서 액션슈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마르틴 카이머(독일·사진)가 8.36점을 받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8.16점)를 2위로 밀어내고 새로운 1인자에 올랐다.

또 이 대회에서 우수한 투크 도널드(잉글랜드)가 6.64점으로 9위에서 3위로 경총 뛰어올랐고, 그레인 맥도웰(북아일랜드·6.44점)도 4위에 자리해 유럽선수들이 1~4위를 차지했다.

액션슈어 매치플레이 대회 1회전에서 탈락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6.32점)는 3위에서 5위로 떨어졌고 필 미켈슨(미국·6.23점)은 6위로 밀렸다.

이 대회에서 한국선수로는 두 번째로 8강에 진출했던 양용은(39)이 2.70점을 받아 48위에서 43위로 순위를 끌어올렸고, 최경주(41·SK텔레콤)는 2계단 오른 44위(2.64점)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겉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셀프아트 단열결로방지 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특허 제0497254호 / 특허 제10-0562035호

시공전 → 시공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www.oknwood.com

편백나무는 무병장수의 나무입니다.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베게(편백나무씨앗+결명자씨앗)  
▲베게(편백나무씨앗+결명자씨앗)  
▲편백나무베게  
▲편백나무베게

목조주택 &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 각종 내장재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 전시장 2층 | 편백가구 전시장 4층

■ 판매품목: 창능·5D서랍장·수납공간·불박이장·축육기·독서대·책상 Set(의자·책꽂이)·침대·샬롱·편백베게·베게(편백 씨앗 + 결명자 씨앗)·편백가습기 수액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문제작 | 판매 및 창업문의  
전국·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 010-3609-4321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축재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 062) 652-2935 · 2223 FAX : 062) 651-5141

협력사 | 우인패이퍼몰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 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도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